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2022. 7.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목 차 ▶

요 약

1.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 동향 / 1
2.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 2
 - 가.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 2
 - 나. 노동력 유희화 심화 / 8
 - 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 10
3. 결론 및 시사점 / 12

< 요약 >

1.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 동향

- ▶ 지난 5년간 고용 변화(전년동기비)는 '①고용 둔화(2017.1q~2018.3q)→②고용 회복(2018.4q~2020.1q)→③고용 감소(2020.2q~2021.1q)→④고용 회복(2021.2q~2022.1q)'의 4가지 국면으로 구분 가능

- ※ ①고용 둔화: 실물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폭 축소
- ※ ③고용 감소: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4분기 연속 고용 감소(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번째 최장기간 감소)

2.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가.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연령·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고용 양극화

- ▶ [연령별]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

- ※ 지난 5년간('17.1q→ '22.1q)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129.7%로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

- ▶ [취업시간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감소

- ※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66.3% 증가. '18~'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단기 알바' 채용 영향이 크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 [업종별] 준공공부문(보건·복지업, 공공행정)과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대면서비스업(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고용은 감소

- ※ 지난 5년간 준공공부문의 고용 증가 기여율(준공공부문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68.7%(87.1만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9만명)의 2/3 이상을 차지

- ▶ [지역별] 경기, 충남 등 12개 지자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 등 5개 지자체 고용은 감소

- ※ 지난 5년간 고용 증가분(126.9만명)의 69.5%(88.2만명)가 경기도에서 창출될 정도로 고용 증가 기여율(경기도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 편중 심화

나. 노동력 유희화 심화

- ▶ 지난 5년간 비경제활동인구 29.5만명 증가. 특히 만성적 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유희 비경제활동인구)’과 ‘취업준비’가 대폭 증가
 - ※ 지난 5년간 ‘쉬었음’은 33.5% 증가, ‘취업준비’는 19.8% 증가
 - ⇒ 유희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

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 ▶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
 - ※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8% 감소*, ‘무급가족종사자’는 11.7% 감소
 - *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5년 전(‘17.1q)보다 4.0% 증가.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3. 결론 및 시사점

- ▶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부문별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 활력을 높여야 하며, 노동시장 밖의 유희인력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 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 ⇒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추진)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 활력 증진 제고
 - ⇒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 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 구축 필요

1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 동향

□ 올해 1분기 취업자는 2,736.9만명으로 5년 전(2017.1q, 2,610.0만명)보다 126.9만명 증가(증가율은 4.9%)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 변화(전년동기비)는 '고용둔화 → 고용 회복 → 고용 감소 → 고용회복'의 4가지 국면으로 구분 가능

① **(고용둔화: 2017.1q~2018.3q)** 실물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폭 축소

※ 분기별 경제성장률(% , 전기비, 한국은행)

: 1.0('17.1q)→ 0.7(2q)→ 1.5(3q)→ -0.3(4q)→ 1.1('18.1q)→ 0.6(2q)→ 0.7(3q)

※ '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의결일 '17.7.15), '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의결일 '18.7.14)되어 2년간 29.1%나 인상

② **(고용회복: 2018.4q~2020.1q)** 실물경기 부진은 심화되었으나, 이전 기간 고용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고용 증가폭 다소 확대

※ 분기별 경제성장률(% , 전기비,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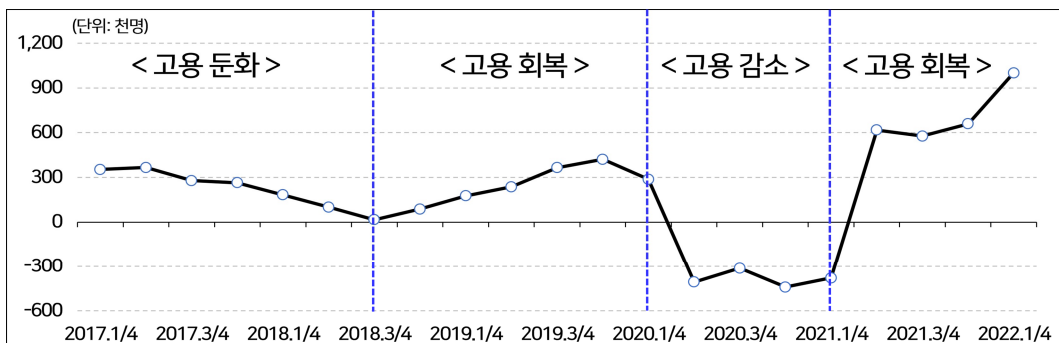
: 0.8('18.4q)→ -0.2('19.1q)→ 1.0(2q)→ 0.4(3q)→ 1.3(4q)→ -1.3('20.1q)

③ **(고용 감소: 2020.2q~2021.1q)** 코로나19 충격으로 4분기 연속 고용 감소

※ 4분기 연속 고용 감소는 IMF 외환위기('98.1q~'99.1q: 5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09.1q~'09.4q: 4분기) 이후 3번째 최장기간 감소

④ **(고용회복: 2021.2q~2022.1q)** 이전 기간 고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고용 증가폭 확대

< 그림 1. 지난 5년간 분기별 고용 증감 추이(전년동기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

가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1) 연령대별: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vs 30~40대 취업자 감소

- 지난 5년간(2017.1q→2022.1q) 60세 이상 취업자는 급증한 반면,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심화
 - 60세 이상의 고용 증가 기여율(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129.7%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
 - ※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의미
 - 반면, 30대와 40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각각 -28.4%, -37.0%로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

< 표 1. 지난 5년간 연령대별 고용 증감 및 고용 증가 기여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전체 취업자	2,610.0만명	2,736.9만명	126.9만명	100%
15~29세(청년층)	385.0만명	397.9만명	12.9만명	10.2%
30~39세	563.5만명	527.5만명	-36.0만명	-28.4%
40~49세	676.1만명	629.3만명	-46.8만명	-37.0%
50~59세	618.3만명	650.6만명	32.3만명	25.5%
60세 이상	367.1만명	531.7만명	164.6만명	12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대별 취업자의 월별 고용흐름도 분기별 고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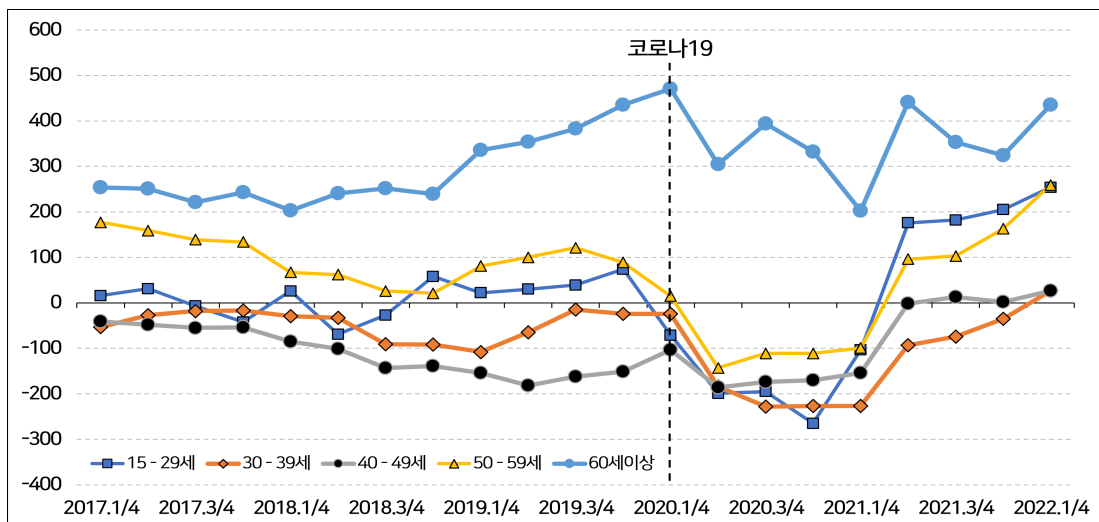
- ▶ 지난 5년간('17년 4월→'22년 4월: 문재인 정부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129.5%로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 만회
 - ※ 지난 5년간('17.4→'22.4) 주요 연령대별 고용 증가 기여율(%)
 - [60세 이상] 129.5 [50~59세] 23.3 [40~49세] -34.6
 - [30~39세] -25.9 [15~29세] 7.5

○ 분기별로는 코로나19 시기에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속 증가한 반면, 다른 연령대 취업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고용 감소(전년동기비)

- 30대 취업자는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20분기 연속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는 2017년 1분기부터 2021년 2분기까지 18분기 연속 감소

※ '17.1q 이전까지 고려하면 30대 취업자는 '13.1q~'21.4q까지(36분기), 40대 취업자는 '15.1q~'21.2q까지(26분기) 고용이 연속해서 감소(전년동기비)

< 그림 2. 지난 5년간 연령대별 고용 증감(전년동기비) 추이(분기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취업시간별: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vs 주36시간 이상 일자리 감소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단시간 일자리인 주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감소하며 취업시간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진행. 특히 초단시간 일자리인 주15시간 미만 취업자 급증

- 올해 1분기 주15시간 미만 취업자는 155.0만명으로 5년 전(2017.1q)보다 66.3% 증가

⇒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는 노인·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담을 견뎌내기 위한 '교육지책'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

< 표 2. 지난 5년간 취업시간별 고용 증감 및 증가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증가율
전체 취업자	2,610.0만명	2,736.9만명	126.9만명	4.9%
주36시간 미만	402.2만명	593.1만명	190.9만명	47.5%
주15시간 미만	93.2만명	155.0만명	61.8만명	66.3%
주15~35시간	309.0만명	438.1만명	129.1만명	41.8%
주36시간 이상	2,157.8만명	2,082.8만명	-75.0만명	-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월별 고용흐름도 분기별 고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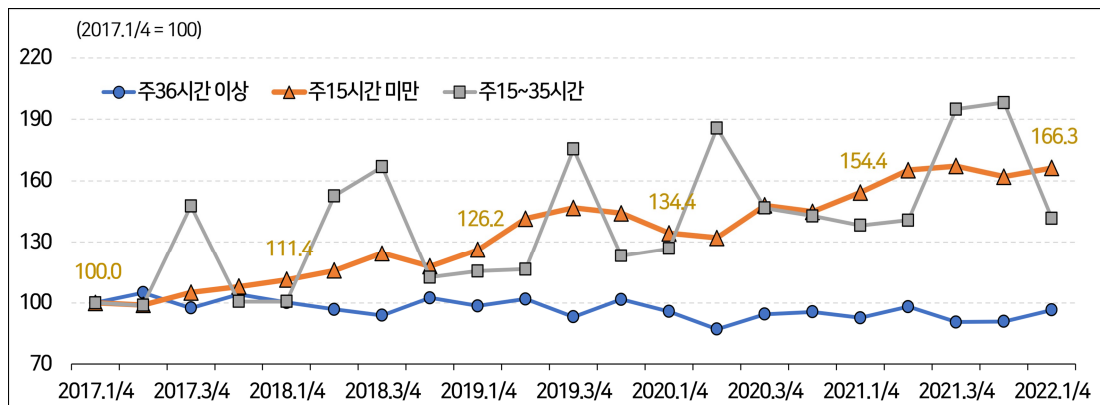
- ▶ 지난 5년간('17년 4월 → '22년 4월)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63.8% 증가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9% 감소
 - ※ 지난 5년간('17.4 → '22.4) 취업시간별 고용 증가율(%)
[주15시간 미만] 63.8 [주15~35시간] 39.1 [주36시간 이상] -2.9

○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 증가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2018~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단기 알바' 채용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분(61.8만명) 중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0.1%(37.2만명), '청년층(15~29세)'이 19.7%(12.1만명)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이 44.0%*(27.2만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이 22.2%(13.7만명)를 차지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4.3%(21.2만명) + 공공행정 9.7%(6.0만명)

< 그림 3. 지난 5년간 취업시간별 고용 추이(분기별) >



주: 2017년 1분기 대비 각 분기별 고용 수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업종별: 준공공부문 고용 증가 vs 대면서비스업 고용 감소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같은 준공공부문과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하는 업종별 고용 양극화 심화
 - 지난 5년간 업종별 고용 증가 기여율(해당 업종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 증감분)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56.6%*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 24.2%, 운수·창고업 1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지난 5년간 늘어난 일자리 126.9만개 중 56.6%인 71.8만개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
 - ⇒ 경기침체기에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한국고용정보원). 他 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하던 가구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주종사 분야를 농업으로 바꾸어 해당 업종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
 - 특히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같은 준공공부문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68.7%*(87.1만명)로 지난 5년간 전체 고용 증가분(126.9만명)의 2/3 이상을 차지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6.6% + 공공행정 12.1%
 -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각각 -38.3%, -14.7%로 5년 전(2017.1q)보다 고용이 오히려 감소

< 표 3. 지난 5년간 업종별 고용 증감 및 고용 증가 기여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전체 취업자	2,610.0만명	2,736.9만명	126.9만명	100%
농림어업	100.3만명	131.0만명	30.7만명	24.2%
광업	2.1만명	1.3만명	-0.8만명	-0.6%
제조업	453.0만명	447.6만명	-5.4만명	-4.3%
전기·가스·증기	7.6만명	7.6만명	-	-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1.3만명	17.3만명	6.0만명	4.7%
건설업	190.8만명	207.1만명	16.3만명	12.8%
도·소매업	381.8만명	333.2만명	-48.6만명	-38.3%
운수·창고업	141.1만명	165.3만명	24.2만명	19.1%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숙박·음식점업	228.0만명	209.3만명	-18.7만명	-14.7%
정보통신업	78.2만명	95.7만명	17.5만명	13.8%
금융·보험업	79.1만명	77.9만명	-1.2만명	-0.9%
부동산업	52.2만명	54.5만명	2.3만명	1.8%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110.2만명	127.8만명	17.6만명	13.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34.4만명	141.6만명	7.2만명	5.7%
공공행정	96.9만명	112.2만명	15.3만명	12.1%
교육서비스업	189.4만명	186.1만명	-3.3만명	-2.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83.9만명	255.7만명	71.8만명	5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41.5만명	46.5만명	5.0만명	3.9%
협화·단체, 기타 개인	120.2만명	109.9만명	-10.3만명	-8.1%
가구내 고용 활동	6.9만명	7.7만명	0.8만명	0.6%
국제·외국기관	1.1만명	1.5만명	0.4만명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업종별 취업자의 월별 고용흐름도 분기별 고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

- ▶ 지난 5년간('17년 4월 → '22년 4월) 업종별 고용 증가 기여율(해당 업종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 증감분)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60.0%로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업 18.1%, 농림어업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각각 -34.0%, -12.2%로 5년 전('17년 4월)보다 고용이 오히려 감소
- ※ 지난 5년간('17.4 → '22.4) 주요 업종별 고용 증가 기여율(%)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60.0 [운수·창고업] 18.1 [농림어업] 15.4
 [공공행정] 15.1 [정보통신업] 14.7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11.8
[도·소매업] -34.0 [숙박·음식점업] -12.2 [협화·단체, 기타 개인] -8.4

(4) 지역별: 12개 지자체 고용 증가 vs 5개 지자체 고용 감소

-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29.4%(5개 지자체*)는 5년 전(2017.1q)보다 고용이 줄어들면서 지역별 고용 양극화 진행
- * 고용이 감소한 5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 특히 지난 5년간(2017.1q → 2022.1q) 고용 증가분(126.9만명)의 69.5% (88.2만명)가 경기도에서 창출될 정도로 고용 증가 기여율(해당 지역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 증감분) 편중 심화

- ※ 경기도 고용이 증가한 것은 ①반도체업 호황('17~'18년, '20년~)과 ②디지털 혁신에 따른 IT업종 붐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 ▶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네이버와 넥슨 등 정보기술(IT)과 게임 기업 등이 판교 등 경기권에 집중

< 표 4. 지난 5년간 지역별 고용 증감 및 고용 증가 기여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전체 취업자	2,610.0만명	2,736.9만명	126.9만명	100%
서울특별시	510.5만명	506.0만명	-4.5만명	-3.5%
부산광역시	167.4만명	164.6만명	-2.8만명	-2.2%
대구광역시	123.5만명	121.5만명	-2.0만명	-1.6%
인천광역시	150.4만명	156.1만명	5.7만명	4.5%
광주광역시	73.4만명	74.0만명	0.6만명	0.4%
대전광역시	76.0만명	78.3만명	2.3만명	1.8%
울산광역시	57.6만명	55.1만명	-2.5만명	-2.0%
세종특별자치시	12.1만명	18.7만명	6.6만명	5.2%
경기도	651.1만명	739.3만명	88.2만명	69.5%
강원도	72.4만명	76.5만명	4.1만명	3.2%
충청북도	81.2만명	89.6만명	8.4만명	6.6%
충청남도	106.3만명	115.0만명	8.7만명	6.9%
전라북도	89.4만명	93.4만명	4.0만명	3.2%
전라남도	92.2만명	98.1만명	5.9만명	4.6%
경상북도	140.9만명	140.5만명	-0.4만명	-0.3%
경상남도	169.0만명	171.1만명	2.1만명	1.7%
제주도	36.7만명	39.3만명	2.6만명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지역별 취업자의 월별 고용흐름도 분기별 고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

- ▶ 지난 5년간('17년 4월→ '22년 4월) 전국 17개 지자체 중 23.5%(4개 지자체: 서울, 부산, 대구, 울산)는 고용 감소
 - ▶ 지난 5년간('17년 4월→ '22년 4월) 고용 증가분(133.4만명)의 70.5%(94.1만명)가 경기도에 창출
- ※ 지난 5년간('17.4→ '22.4) 주요 지역별 고용 증가 기여율(%)
[경기도] 70.5 [충남] 5.4 [세종] 5.2 [인천] 5.0 [충북] 4.5
 [부산] -1.8 [대구] -1.7 [울산] -1.6 [서울] -0.9

나 노동력 유휴화 심화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5만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력의 유휴화 문제와 직결

< 표 5. 지난 5년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비경제활동인구	1,655.6만명	1,685.1만명	29.5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을 살펴보면 만성적 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5년 전 보다 크게 증가

- 올해 1분기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유휴 비경제활동인구'는 246.2만명으로 5년 전(2017.1q)보다 33.5% 증가

⇒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

- 올해 1분기 취업을 위해 학원·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78.8만명으로 5년 전(2017.1q)보다 19.8% 증가

< 표 6. 지난 5년간 비경제활동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및 증가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1,655.6만명	1,685.1만명	29.5만명	1.8%
쉬었음	184.4만명	246.2만명	61.8만명	33.5%
취업준비 ¹⁾	65.8만명	78.8만명	13.0만명	19.8%
육아	131.6만명	108.8만명	-22.8만명	-17.3%
가사	607.3만명	613.0만명	5.7만명	0.9%
교육기관·학원 통학	366.2만명	306.7만명	-59.5만명	-16.2%
연로	220.9만명	257.2만명	36.3만명	16.4%
그 외 ²⁾	79.3만명	74.3만명	-5.0만명	-6.3%

주: 1. 비경제활동 사유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를 합한 수치(통계청)

2. 비경제활동 사유 중 「진학준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기타」를 합한 수치

3. 각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의 월별 흐름도 분기별 흐름과 유사한 모습

- ▶ 지난 5년간('17년 4월→ '22년 4월) 비경제활동 사유 중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은 36.4% 늘었고,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18.0% 증가

※ 지난 5년간('17.4→ '22.4) 주요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가율(%)

[쉬었음] 36.4 [취업준비] 18.0 [연로] 17.4 [육아] -20.9 [가사] 2.0

- 지난 5년간 '쉬었음'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고, '취업준비'는 '청년층(15~29세)'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분 61.8만명 중 56.1%인 34.7만명이 '60세 이상'(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기여율 56.1%)

< 표 7. 지난 5년간 연령대별 '쉬었음' 증감 및 기여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쉬었음	184.4만명	246.2만명	61.8만명	100%
15~29세(청년층)	32.3만명	43.3만명	11.0만명	17.8%
30~39세	19.2만명	27.9만명	8.6만명	13.9%
40~49세	20.7만명	26.9만명	6.1만명	9.9%
50~59세	39.5만명	40.9만명	1.4만명	2.3%
60세 이상	72.6만명	107.3만명	34.7만명	5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분 13.0만명 중 47.7%인 6.2만명이 '15~29세'(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기여율 47.7%)

< 표 8. 지난 5년간 연령대별 '취업준비' 증감 및 기여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취업준비	65.8만명	78.8만명	13.0만명	100%
15~29세(청년층)	49.1만명	55.3만명	6.2만명	47.7%
30~39세	11.8만명	15.2만명	3.3만명	25.4%
40~49세	3.2만명	4.8만명	1.7만명	13.1%
50~59세	1.2만명	2.7만명	1.5만명	11.5%
60세 이상	0.5만명	0.8만명	0.3만명	2.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
 -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3만명으로 5년 전(2017.1q)보다 15.8% 감소
 - ⇒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 고용원 유무별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 , 매출액 대비, 한국은행)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정비] 38 [변동비] 39 [영업이익] 23
 -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정비] 16 [변동비] 43 [영업이익] 41
 - 올해 1분기 ‘무급가족종사자’는 88.7만명으로 5년 전(2017.1q)보다 11.7% 감소
 - * 동일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통계청)
 - ⇒ 이는 유급종사자가 1명도 없는 형태의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4.8만명으로 5년 전(2017.1q)보다 4.0% 증가
 - ⇒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표 9. 지난 5년간 종사상지위별 고용 증감 및 증가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증가율
전체 취업자	2,610.0만명	2,736.9만명	126.9만명	4.9%
임금근로자	1,951.4만명	2,099.2만명	147.8만명	7.6%
비임금근로자	658.7만명	637.8만명	-20.9만명	-3.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9.5만명	134.3만명	-25.2만명	-15.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98.8만명	414.8만명	16.0만명	4.0%
무급가족종사자	100.4만명	88.7만명	-11.7만명	-1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임금근로자의 월별 고용흐름도 분기별 고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

- ▶ 지난 5년간(‘17년 4월→ ‘22년 4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4.2% 줄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15.5% 감소. 다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3% 증가

-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을 업종별로 분해해보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

⇒ 이들 업종은 2018~2019년에는 실물경기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아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

< 표 10. 지난 5년간 주요 업종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제조업	21.7만명	15.3만명	-6.4만명
도소매업	37.2만명	31.7만명	-5.6만명
숙박음식업	34.0만명	29.1만명	-4.9만명
건설업	15.2만명	11.4만명	-3.7만명
부동산업	4.6만명	2.3만명	-2.3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는 5년 전(2017.1q)보다 크게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과 청년층(15~29세)은 5년 전보다 증가
-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 대한 연령대별 기여율(해당 연령대별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분)은 40대가 67.6%, 50대가 40.5%로 높게 나타남.

※ 고용 감소에 대한 기여율이기 때문에 기여율이 (+)이면 고용 감소, (-)이면 고용 증가를 의미

< 표 11. 지난 5년간 연령대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감 및 고용 감소 기여율 >

구분	2017.1q(A)	2022.1q(B)	증감(B-A)	기여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9.5만명	134.3만명	-25.2만명	100%
15~29세(청년층)	4.3만명	6.0만명	1.7만명	-6.4%
30~39세	26.6만명	21.2만명	-5.4만명	21.4%
40~49세	54.5만명	37.4만명	-17.1만명	67.6%
50~59세	53.6만명	43.4만명	-10.2만명	40.5%
60세 이상	20.5만명	26.3만명	5.8만명	-2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지난 5년간(2017.1q→ 2022.1q) 고용 흐름은 연령·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고, 특별한 활동 없이 쉬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유휴인력이 늘었으며,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모습

①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 업종별로는 '준공공 부문'은 고용이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은 고용이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 감소

※ 지난 5년간('17.1q→ '22.1q)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129.7%로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며, 동기간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66.3%나 증가

⇒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담을 견뎌내기 위한 '교육지책'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추정

② **(노동력 유휴화 심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만성적 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과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동력 유휴화 심화. 특히 '쉬었음'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했고, '취업준비'는 '청년층(15~29세)'에서 대폭 증가

※ 지난 5년간('17.1q→ '22.1q)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은 33.5% 늘었고, '취업준비'는 19.8% 증가

⇒ '유휴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

③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 진행

⇒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더불어 생계형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부문별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 활력을 높여야 하며, 노동시장 밖의 유희인력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①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 추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연령·업종·지역에 따른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가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함.

* 규제 신설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2-for-1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같은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

②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희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보다 쉽게 재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예산 확대 등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일자리 예산(31.1조원) 중 '직업훈련(8.1%)', '고용서비스(6.4%)'에 배정된 예산은 15% 수준에 불과('22년 예산 기준, 고용노동부)

※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대상에 맞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